

「中經 특허기술賞」 첫 榮光 유희찬 김길섭 씨 차지

延繩釣針 자동차 제조장치로 1月 수상

중앙경제신문이 특허청과 함께 제정한 특허 기술상 첫 수상작(1월분)이 선정됐다. 첫 수상작은 유희찬·김길섭 씨가 공동출원한 실용신안 「延繩釣針自動化 제조장치」.

과학기술인과 발명가들의 연구개발 의욕을 높이고 중견내지 중소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 제정된 이 상은 1개월동안 등록사정이 확정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3건의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수상작이 결정된다.

또 이 상은 창의성·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에 초점이 맞춰지며 제정취지에 걸맞게 개인 및 중소·중견기업에 의해 출원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상은 월별상과 연말상으로 구분 시상되는데

월별상 수상자에게는 1백만원이 부상으로 수여되며 시작품 제작·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화 자금지원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특전이 따른다.

연말상은 세종발명대상(상공부장관상), 총무공상(특허청장상·중앙경제신문사장상·한국발명특허협회장상)으로 나뉘지며 각각 5백만원·3백만원의 부상이 주어진다.

이와함께 발명품 전시회에 특별출품작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다.

제정 첫번째인 1월 수상후보로 추천된 기술은 수상작외에 「신규방향족아미드-에스테르단량체 및 그 제조방법」과 「조립식 배수구」 등이었다. 시상식은 31일 특허청회의실에서 있었다.

■ 1월 수상작 ■

延繩釣針 자동화 제조장치

유희찬-김길섭 씨 공동출원

특허기술상 1월수상작으로 결정된 「延繩釣針自動化 제조장치」는 종래 일일이 수작업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 제조단가 절감은 물론 대량생산의 길을 텃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제품의 불량률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근해 및 원양어업에서 오징어·낙지 등 연체류 어종을 잡을 때 쓰이는 環形狀의 이 바늘체는 국내시장 수요만도 연30억원에 이르고 있다.

89년까지는 비교적 싼 인건비 덕택에 오징어 낚시 바늘체를 일본에 수출했으나 인건비 상승으로 90년부터는 수출이 끊긴 상태.

따라서 이 장치를 이용하면 생산단가를 3원에서 60전으로 대폭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의 수출도 재개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있다.

이 장치의 공정은 ▲U자형 침을 8개씩 벨트

콘베이어 및 유압실린더 장치에 의해 접속연결자 중앙심축에 형성된 환형상의 홈에 끼워넣고 ▲접속연결자를 90도 회전시킨 후 유압실린더를 이용, 파이프링을 결합시키고 ▲접속연결자를 90도 회전시킨 후 분리집게로 끄집어 내는 것 등으로 이뤄져있다.

이 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종전 노동인력확보가 어려워 적기에 낚시바늘체를 공급하지 못했던 폐단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기치 못한 어장이 형성될 경우 정상

적인 조업이 곤란했던 문제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종래에는 제작자의 숙련도에 따라 제품형태가 고르지 못했던 단점도 치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세계적으로 유자망조업이 금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낚시바늘체에 의한 조업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외화획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추천작 ■

「조립식 배수구」

이근희 씨 출원

이근희 씨가 실용신안으로 출원, 1월 특허기술상에 추천된 이 고안은 경사가 급한 비탈면에 설치, 빗물을 비탈면 하부의 도로측 배수구로 끌어내는데 사용되는 조립식 배수구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는 콘크리트로 반원형 또는 「ㄷ」자형단면의 수로를 설치했기 때문에 비탈면 하부

에서는 빗물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도로측 배수구를 강타, 빗물이 도로상에 넘치거나 시설물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고안은 외면이 요철부를 형성해流水이 속도를 떨어뜨리고 가운데 부분은 토사가 쉽게 빠질 수 있도록 했으며 조립식이기 때문에 시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씨는 87년, 88년 발명품 전시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며 특허3건, 실용신안 19건, 의장 92건 등 총 1백14건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신규방향족 아미드-에 스테르單

量體 및 製法」

김진일 · 서홍석 씨 공동출원

김진일 · 서홍석 씨에 의해 공동출원돼 1월 특허기술상에 추천된 이 발명은 새로운 과학구조를 갖는 방향족 및 방향족-지방족 공중합폴리아미드-에스테르 중합체의 기본물질이 되는 단량체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고탄성 · 고강도 및 내열성이 뛰어난 폴리아미드계 섬유 원료화합물인 이물질은 타이어 및 공업용 벨트의 재료와 방탄복 · 방수복 · 방염재 등으로 두루 이용될 수 있다.

외국제 수입제품은 섬유의 伸度가 떨어지며 타이어코드나 기타 마찰이 심한 곳에 사용될 경우 내구성이 극도로 약화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 발명은 이와같은 결점을 극복함으로써 연간 1천만달러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中經 金明煥 記者〉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은 대기업의 지름길